

#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청사진 마련

### 시, 2027년까지 5년간 인권 행정 기반될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가 어린이와 여성,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주시 인권 행정의 기틀이 될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의 비전과 중장기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의 지침이 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과 전주시 주요 정책,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 수평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사람중심 인권도시 △안전정보장 행복도시 △함께하는 공존도시 △인권중심 행정도시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추진전략, 4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이주민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된 인권개념을 반영해 안전과 환경, 노동, 청년, 스포츠, 디지털 성범죄, 1인 가구, 자살 예방 및 마음 치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정책을 강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시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강화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행정 전 과정에서 인권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한 후 성과가 미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거쳐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연구용역

에 착수했으며, △국내·외 인권도시 사례 분석 △전주시 인구·환경·문화 등 지역적 특성과 인권 여건 분석 △제1차 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분석·평가 △시민 인권실태 설문조사 및 사회학적조사 등 대상별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기관 공청회, 관계 부서 및 인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정 전반에 인권을 반영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정비

### 전주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자생 단체와 송천1동 먹자골목 일원서 실시... 지속 추진키로

전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가 등 청소 취약지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정비에 나섰다.

시는 불법투기 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송천1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 박용업),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 단체 50여 명과 함께 변화가 환경정비 활동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변화가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5월 마지막 주에는 한옥마을 일원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시민 활동가와 함께 민·관 합동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순찰



전주시는 불법투기 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송천1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 단체 50여 명과 함께 변화가 환경정비 활동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및 계도 활동을 5월부터 강화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경찰이란, 자기가 살고있는 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교육을 받고 범죄예방 홍보 등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민간봉사기구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서부신시가지와 예곡시터 등에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1회용품줄이기 시민활동가 등 150여명의 시민들과 2차례에 걸쳐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박용업 완산 시민경찰연합회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환경정비 및 캠페인으로 상가 미관 개선 및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해 송천동 인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도시 환경정비 참여해 전주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도심 환경개선 문제는 행정·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도심 환경정비를 위해 나선다면 행정도 언제든지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 하겠다"면서 "도심 내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 및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의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완산소방서, "5월 연휴 기간 안전수칙 준수해 주세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어린이날 및 가족의 달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연휴 기간에 대형 화재 예방 및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2년) 5월 중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945건, 재산 피해 60억 원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은 △부주의의 533건 △전기 182건 △기타 92건 △기타 138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죽놀이, 불장난 등 하지말것 △화재 발생 대비 가정용 소화기 비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야외 행사장 등 사전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불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행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시는 허용된 구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휴면 금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 시 해당 관서에서 사전 허가 받기 등 산불 예방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받아요"

###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건강한 성장 위해 무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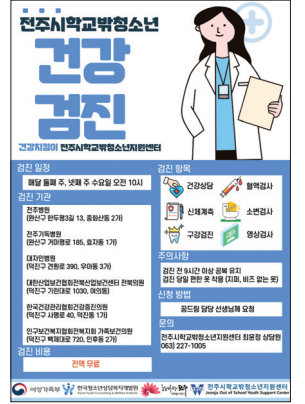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동센터에서만 3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전남·북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4월~6월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건강검진 안내 강화 및 수검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18세 이하(2005년생~2014년생) 학교 밖 청소년 중 2020년 이전에 건강검진을 수검한 청소년이다. 검진 후 매 3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상당담 및 진찰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결핵검사 등으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라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하고 자신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s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전주시, 6월 30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과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접수 첫째 주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가 시행된다.

시는 과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시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서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처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역 1만2,419개 업체에 약 4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남기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일부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